

세계문학기행: Program 3 호메로스의 『일리어드』

김재신

수업 내용

- 1. "세계문학기행" 수업의 목적
- 2. 지난 수업 개요
 - Program 1-2 개요
- 3. Program 3의 요약
 - 그리스
 - 지리적 배경
 - 그리스의 역사
 - 신화의 전통
 - 『일리어드』 시대
 - 신화의 인물
 - 신화의 줄거리
 - 작품의 구성
 - 문제
 - 평가
 - 논의 주제
- 4. 과제
- 5. Program 4 개요

세계문학기행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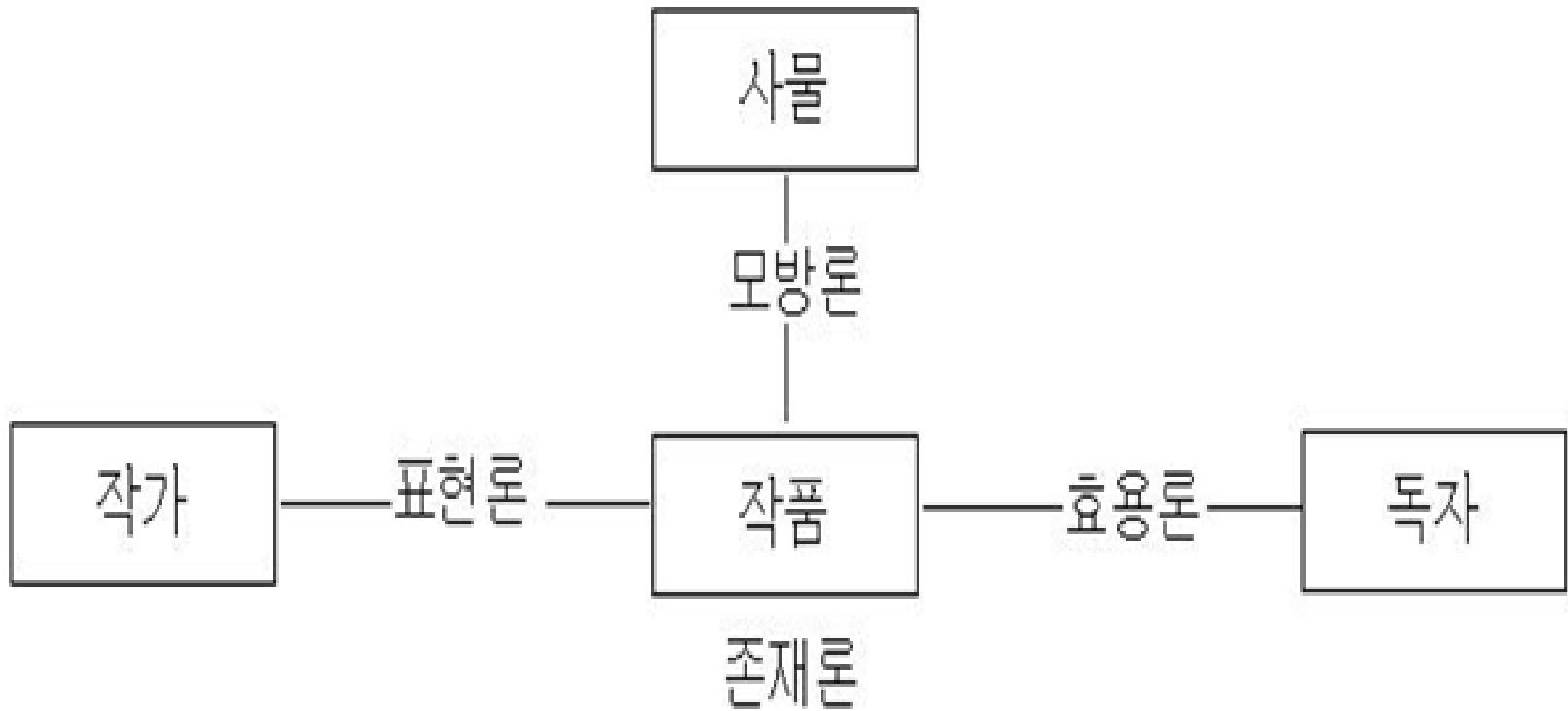
- 본 교과는 범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시공을 초월해 읽히는 세계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업중 서양 고전을 중심으로 최근 일부 노벨문학상 수상작도 공부하게 될 것이고, 이들 작품의 보편적 인간성 탐구를 통해 여러분은 삶의 지혜를 얻어, 보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각각의 프로그램에 주어진 작품을 실제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Program 1: 문명, 문화 그리고 문학

- 성취역량:
 - 문명과 문화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세계문학, 국민문학, 비교문학의 개념을 이해한다.
 - 세계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를 말할 수 있다.
- 과제내용
 - 문화연구는 1) 언제 시작되었으며, 2) 문화연구가 시작된 사회적 배경을 조사하고, 3) 문화연구의 의의를 찾는다. 이를 4) 문학연구와 결부하여 문화연구는 문학 연구와 어떻게 같으며, 다른지를 밝힌다. 이를 ppt 10장 내외로 준비하여 발표한다.

Program 2. 문학과 문학연구

- 성취역량:
 -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한다.
 - 문학 연구 방법론을 파악한다.
 - ~~- 문학연구와 문화연구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과제내용
 - 문제 1. 문학연구 방법론 중 하나를 택해 실례를 들어 설명한다,
 - 문학연구 방법론의 종류를 파악한다.
 - 그 중 하나를 택한다. (예; 형식주의)
 - 세계문학 중 한 작품을 선정한다.
 - 그 작품을 (형식주의)에 입각하여 분석한다. (다른 연구자의 글을 참조하여도 무방)



소설의 3요소

- 인물 (Characterization)
- 구성 (Plot)
- 주제 (Theme)
- 문제 (style)

Program 3: 『일리어드』 *Iliad* : 동서 최초의 전쟁과 그 기록

- 성취역량:
 - 신화와 역사의 상관관계를 이해한다.
 - 서양문학의 효시 『일리어드』의 내용을 파악한다.
 - 『일리어드』 주인공의 삶과 경험으로 생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다.
- 과제내용
 - 호머의 『일리어드』를 1) 읽고, 2) 전쟁의 배경과 의의를 서술하며, 3) 줄거리를 소개하고, 4) 대표적 작중인물의 성격을 분석하고, 5) 주제가 무엇인지를 ppt 슬라이드 15장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시오.

지리적 배경: 그리스 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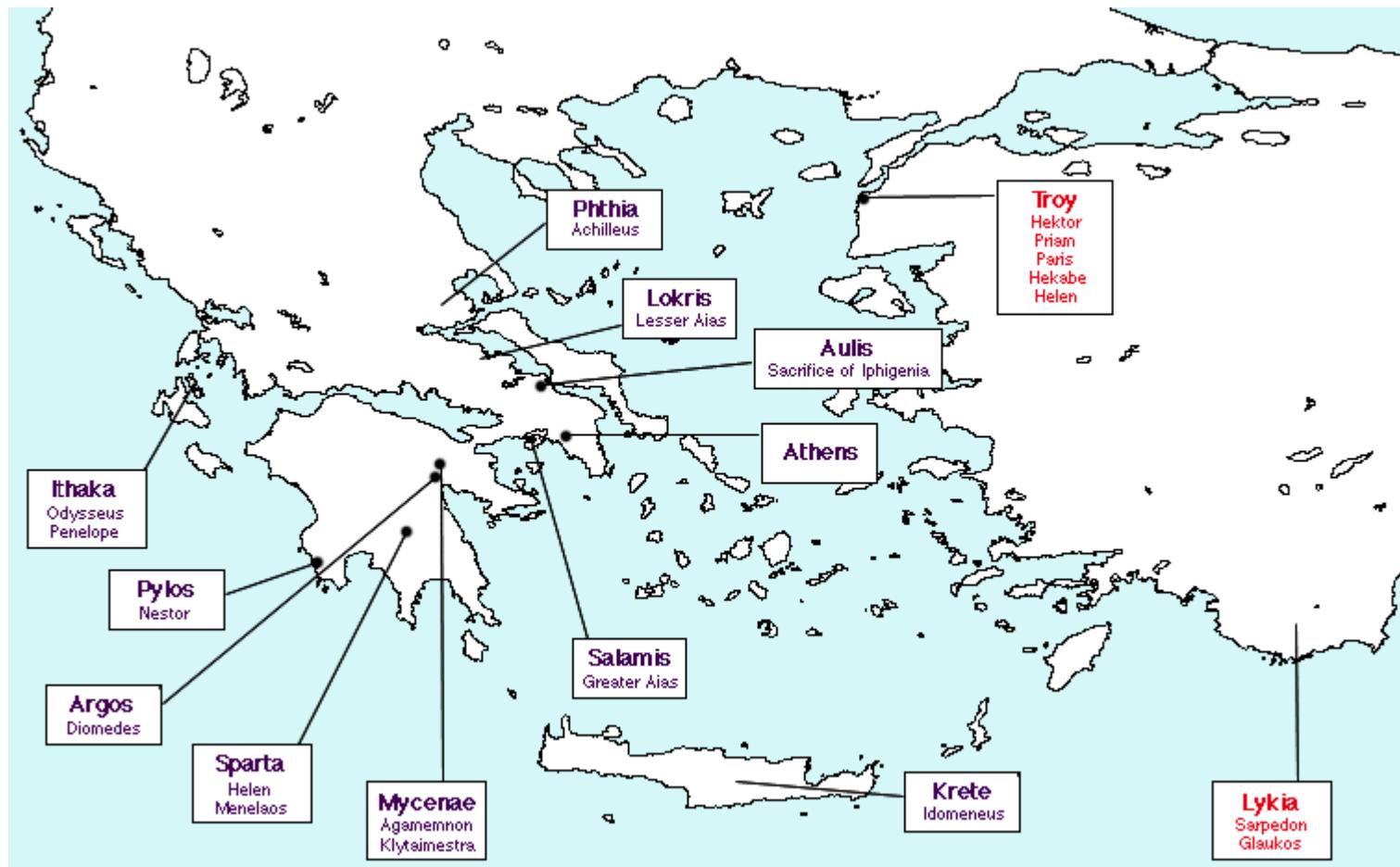
기원전 900~500년 경 고대 페니키아와 그리스의 식민지 건설 현황. / 사진: 책과함께

에게문명 ...에게문명의 지도



<http://m.blog.daum.net/kjs4311/8519548?np=nil&b=-2>

호메로스 시대의 지중해 ✓



그리스의 변화

- 앞선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 BC 2000년 경: 크레타 문명
- BC 1400년 경: 미케네 문명(아카이아인)(신화의 창조):
- BC 1250년 경: 트로이 전쟁(최초 동서의 전쟁)
- BC 800년 경 – **호머시대**: 그리스 도시국가(도리스인의 침공)(신화의 창조):
 - BC 1000~BC 200을 그리스의 암흑시대라 부름
 -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델파이 등 도시국가의 발전
- BC 492년 ~ : 페르시아 전쟁(1차 동서의 전쟁)
- BC 431-404: 펠로폰네스 전쟁(그리스 내전)
- BC 356-336: 필리포스 2세의 마케토니아의 그리스 점령 → 알렉산드리아 대왕 – 알렉산드리아 건설: 그리스계 국가 마케토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알렉산드로스 제국(헬레니즘 제국)
- BC 334년 ~ : 페르시아 원정 (2차 동서의 전쟁)

신화적 배경

- 신화는 고대인은 “사유와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로 우주의 기원과 신이나 영웅의 기록이나 민족의 기원 등을 보여주고 있다. (예, 단군 신화, 박혁거세 신화)
- 민족의 이동과 정복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 문화와 신앙이 생겨났으며 신화와 전설이 함께 혼합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들에 관한 이야기나 영웅 전설이 신화가 되었다.**
 - ① BC 3000년 경: 크레타 문명
 - ② BC 2000년 경: 아카이아 인에 의한 미케네 문명
 - ③ BC 1200년 경: 도리스 인의 침공에 따른 정복으로 그리스 문명
 - ④ 결국 신화의 내용은 여러 가지 요소가 혼합되어 복잡해지고 불일치와 모순이 생겨남

- 그 중 그리스 신화는 서구 세계와 인간의 발전 모습을 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내용 면에서 많은 **자기 모순적 서술**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 구성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략의 연대는 파악할 수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설명하는 "세계의 역사"는 4개로 나눌 수 있다. (BC 8세기 경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서 "신들의 탄생", "세계와 신", "인간의 기원"에 대한 신화를 기록)
 - ① 천지의 생성: 창세 신화 또는 신들의 시대
 - ② 올림푸스의 신들: 12 신들과 인간의 자유 교류 시대; 초기에 신들과 반신반인, 인간이 서로 교류했던 이야기
 - ③ 인류의 시초: 신들의 활동이 제한되었던 영웅의 시대
 - ④ 영웅의 전설: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영웅 전설은 트로이 전쟁과 후일담이다.

신화의 전승

- 헤시오도스 『신통기』 *Theogonia*가 처음 기록이다.
 - 헤시오도스는 B.C. 8세기 말경 호메로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리스의 대표적 서사시인이다. 호메로스는 짙은 안개 속에 싸여 자주 그 실재조차 의심받는 일에 비하여, 헤시오도스가 역사적 실제 인물이었음은 확실하다. 그의 대표적 작품은 『일과 날』 *Ergakai Hemera* 및 『신통기』 *Theogonia*이다.
- 다음은 호메로스의 서사시epic 『일리어드』 *Iliad*이다.
 - 호메로스는 그리스 신화를 체계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신들이나 영웅들의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리스 신화에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할 수 있다.
- 그리스 신화를 가장 뛰어난 형태로 전해 주는 것은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등 3대 비극 시인이다.
-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이야기』에서 얻는 바가 많다.

1. 천지의 생성: 신들의 시대 ✓

- 신의 우두머리인 제우스 이전에도 신들은 있었다.
- 가슴이 넓은 대지 **가이아**, 영혼을 부드럽게 하는 사랑 **에로스** (티탄 족의 기원)
- **무한의 공간인 카오스**(혼돈)가 탄생하고, 그 다음 ‘가슴이 넓은 대지 **가이아**(대지)’, ‘영혼을 부드럽게 하는 에로스가 출현한다. 카오스로부터 에레보스(어둠)와 닉스(밤)가 생겨나고, 닉스와 에레보 사이에서 아이테르(상천)와 헤메라(낮)가 태어났다.
- 가이아는 별이 빛나는 **우라노스**(하늘)와 **폰토스**(바다)를 낳는다. (1세대 신)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서 크로노스, 레아 등 티탄 족이 태어난다. 크로노스 외의 티탄 족 남신으로는 오케아노스(대양의 신), 히페리온, 코이오스, 크레이오스, 이아페토스 등이 있고, 레아 외의 여신으로는 테티스, 테이아, 포이베, 테미스(법), 므네모시네(기억의 여신) 등이 있었다.
- 이들은 연로한 신들로서 훗날 막내 크로노스(2세대 신)가 아버지의 생식기를 자르고 세계의 지배권을 차이하고 6명의 자식을 낳고, 그 중 한 자식이 왕좌를 빼앗을 것이라는 예언에 따라 자식들을 삼켜버린다. 마지막 아들 제우스는 목숨을 부지하고 아버지 크로노스가 삼킨 형들을 토해 내도록 한다. 오케아노스는 포세이돈에게, 히페리온은 아폴론(아폴로)에게 각각 지배권을 넘겨주었다. 카오스 위에 떠다니던 닉스(밤)의 알에서 에로스(사랑)가 태어났고, 에로스는 화살로 찌르고 횃불로 불을 붙여 사물에 생기를 주었다. 에로스도 카오스로부터 곧바로 태어난 원로이지만 그는 결코 늙지 않는 영원한 젊음의 신이다. 어떤 자료에서는 에로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 거기서도 역시 에로스는 늙지 않는 신이다.

- **크로노스**와 레아는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바다의 신), 데메테르(곡물의 여신), 하데스(명부의 왕), 헤스티아 등을 낳았고, 히페리온과 테이아는 에오스(새벽의 여신), 헬리오스(태양신), 셀레네(달의 여신)를 낳았고, 코이오스와 포이베는 훗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은 레토의 부모이다. 오케아노스와 테티스는 대지의 서쪽 끝에서 함께 살면서 올림포스에서 열리는 신들의 연회에 참가하지 않은 채 온 세계의 바다와 하천의 신이 된 3,000명의 아들을 낳고 바다, 하천, 요정이 된 3,000명의 딸 오케아니데스를 낳았다. 오케아노스는 대양을 뜻하게 된다. 그의 딸 가운데 하나인 요정 클리메네는 삼촌인 이아페토스와 결혼하여 아틀라스,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메노이티오스 4형제를 낳는다. 크리오스는 폰토스의 딸인 에우리비아를 아내로 맞이해 별들과 바람들의 아버지인 아스트라이오스 및 페르세스, 팔라스 등을 낳았다.

- 이들 원로들의 세상은 **크로노스**가 그의 아들 **제우스**와 싸우게 되면서 뒤바뀌었다. 크로노스는 자식에게 왕위를 빼앗긴다는 예언을 믿고 자기 자식들을 낳는 족족 삼켜버리는 엽기적인 짓을 했는데, 제우스만 여행히 위기를 모면한다. 훗날 크로노스는 제우스의 아내인 메티스가 준 약을 먹고 삼켰던 자식들을 모두 다시 토해낸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제우스와 그의 남매들은 아버지 크로노스와 삼촌들인 티탄 족들에 대해 폭동을 일으키고, 결과는 제우스 진영의 승리한다. 제우스는 패배한 자들 상당수를 타타로스(지옥)에 가두고 어떤 이에겐 형벌을 가했다. **제우스(3세대 신)**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죽은 사람들의 세계를 차지하고 온 세상은 이 셋의 공동재산이 되었다. 제우스가 명실상부한 신과 인간의 왕이 된 것이다. 바로 이 **제우스로부터 본격적인 그리스 신화의 시대가 열린다.**

- ① 1세대 제왕신: 우라노스
- ② 2세대 제왕신: 크로노스
- ③ 3세대 제왕신: 제우스

2. 올림포스의 12신 ✓

- 형제끼리 제비를 뽑아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넵튠)은 바다를, 하데스(지옥을 관장하기에 12신에서 제명)는 명부(지옥)를 각각 지배한다.
- 제우스의 아내이며 누이이고, 여신 가운데 최고인 헤라(주노), 다음에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남),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냥과 출산의 여신은 아르테미스이다. 곡물의 성장을 주관하는 여신 데메테르, 화로의 불을 주관하는 헤스티아(훗날 헤파이스토의 출현으로 12신에서 제명), 이 두 여신은 제우스의 자매였다.
- 태양신이고 음악·의술·궁술·예언의 신으로 위엄이 넘치는 아폴론, 전령이며 나그네의 수호신인 헤르메스, 불과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 전쟁의 신 아레스(마르스) 등 이상의 네 남신은 제우스의 아들이었다. 이 밖에도 포도주의 신으로 주연의 상징이며 일명 바쿠스라고도 하는 디오니소스가 있는데, 이들이 올림포스 신들의 중심을 이루는 12신이다.
- 제우스의 형제 4 (포세이돈, 데메테르, 헤라, 제우스) / 제우스와 헤라의 자식 4 (헤파이스토스, 아레스, 아테나, 디오니소스) / 레토 여신의 쌍둥이 남매신 (아폴론, 아르테미스) / 전령의 신 헤르메스, 아름다움의 신 아프로디테
- 인간의 생활과 비슷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점에서 죽어야 하는 인간과 달랐다.

3. 인간의 출현

- 여러 가지 설
 -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가장 오랜 것으로는 인간은 신들과 마찬가지로 가이아(대지)에서 태어난 신들과 동족이라는 생각이다.
 - 그러나 헤시오도스의 교훈시 『일과 날』에서 인간은 올림포스 신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의 5세대’로 구성되며 황금의 종족, 백은의 종족, 청동의 종족, 영웅들, 철의 종족들이 순서대로 만들어지고 현재는 철의 종족 시대이기에 노동과 고통으로 가득하고 결국 화를 입고 자멸을 겪게 된다고 한다.
 - 프로메테우스가 소를 잡아 제우스에게는 뼈를, 인간에게는 내장을 주어 무한한 생명의 신들과 유한한 생명의 인간을 구분하게 되었고, 제우스를 속이고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다.
 - 판도라의 궤와 희망도 인간의 탄생과 관련 있음
 - 제우스가 만들었다는 설도 있다.

4. 영웅들의 전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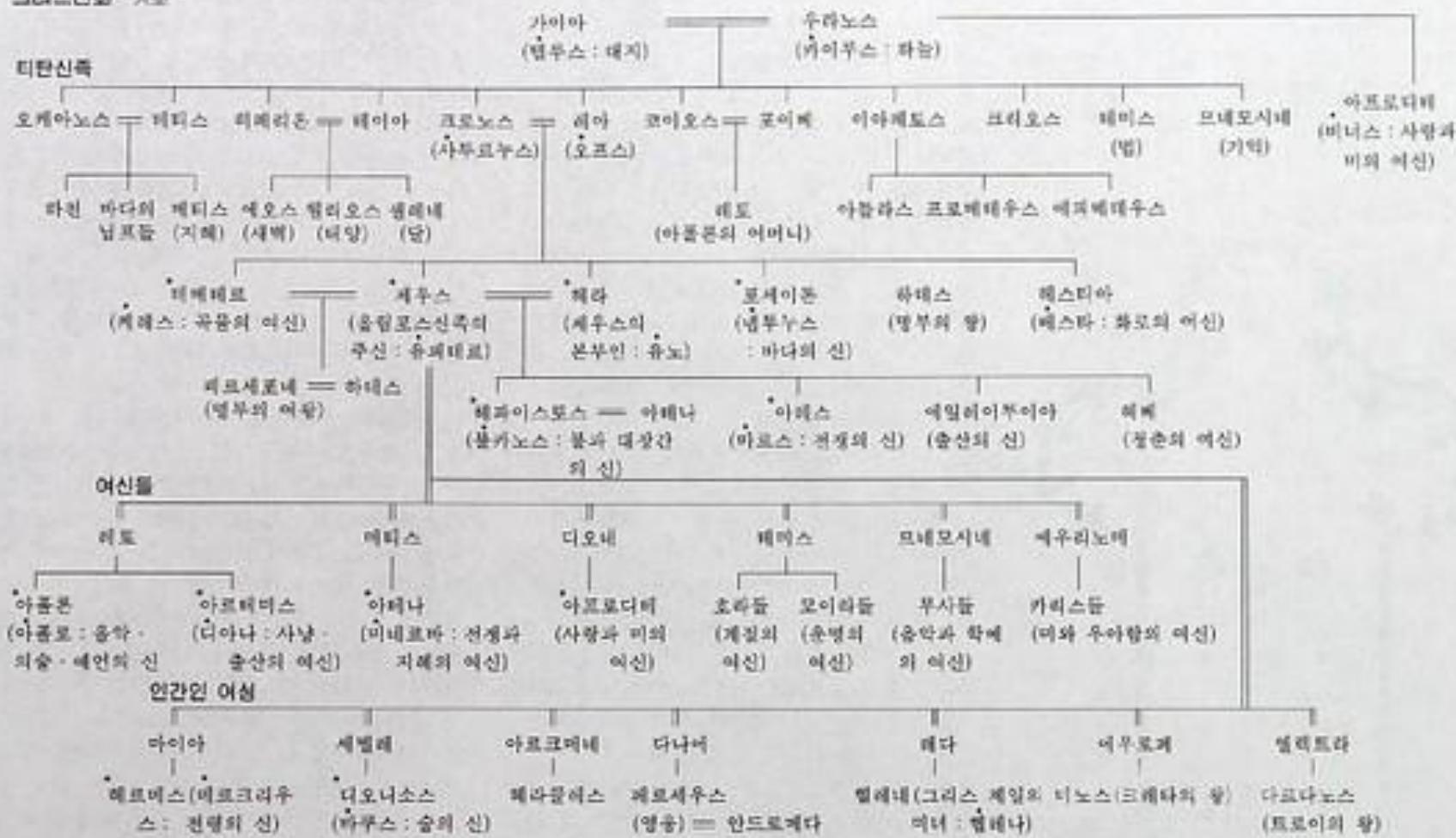
- 그리스 신화의 대부분은 신들의 자손인 영웅들의 이야기로, 매우 다채롭게 꾸며져 있다.
- **아르고나우타이** 전설은 영웅 이아손이 중심인물로서, 헤라클레스, 오르페우스를 포함한 아르고나우타이라고 하는 영웅의 일군이 거선 아르고호를 타고 유명한 황금 양털을 찾아 원정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 **테베** 전설은 카드모스에 의한 테베시의 건국과 그의 자손인 오이디푸스왕의 기구한 일생, 그의 두 아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의 왕위쟁탈전, 테베를 공격하는 7명의 장수, 에피고노이(후예들)라고 불리는 이 7장수의 아들들에 의한 테베 원정 등, 일련의 이야기가 테베 전설권을 이루어,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프스』 등 많은 비극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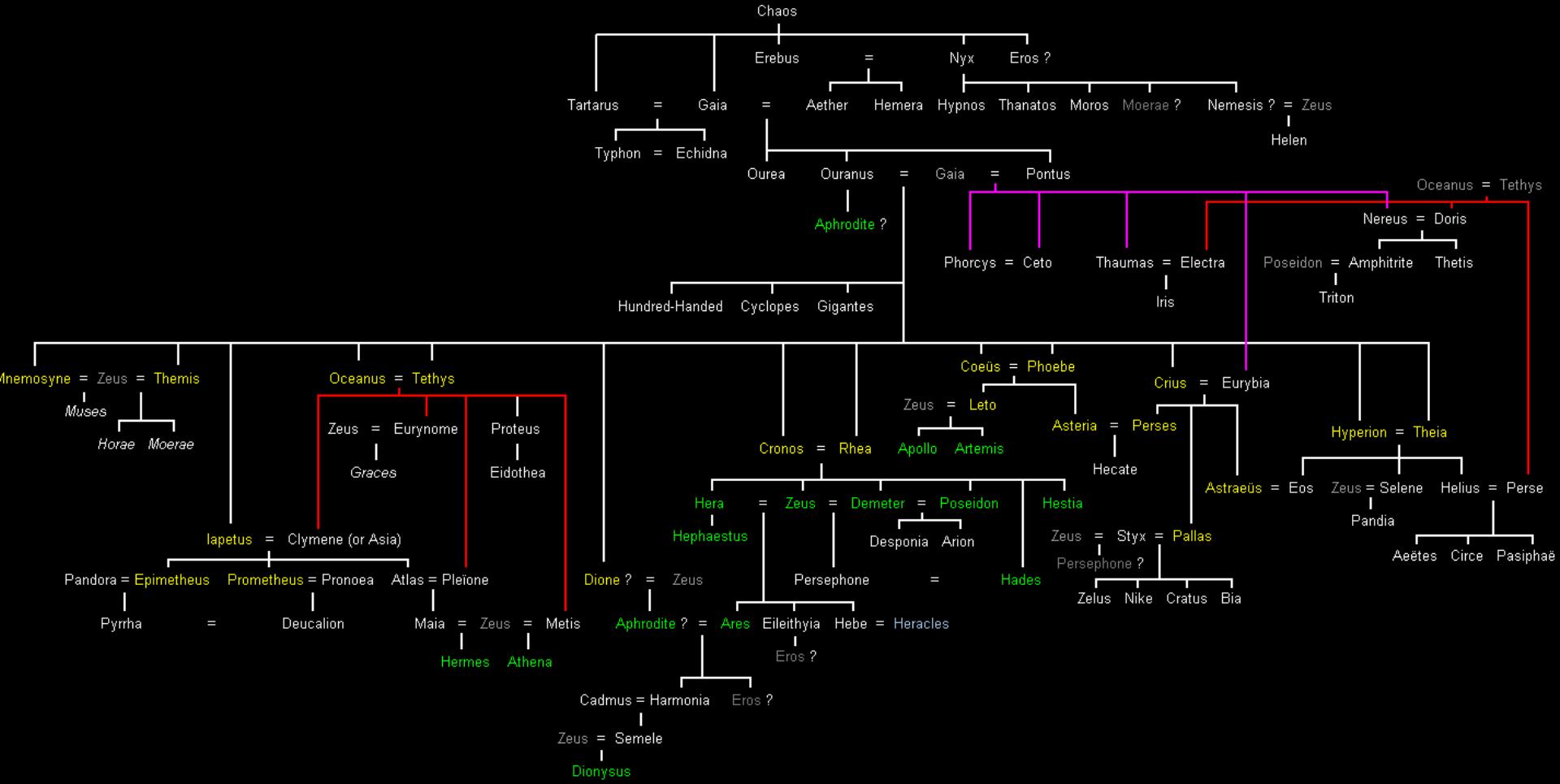


- **트로이** 전설은 올림포스의 3여신의 미인 선발대회를 발단으로 하여,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 의한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 헬레네의 유괴, 그녀를 탈환하기 위하여 아가멤논을 총대장으로 하는 그리스군(軍)에 의한 트로이 원정, 용장 아킬레우스, 지장 오디세우스 등의 활약, 유명한 목마의 계략, 트로이 함락 후 오디세우스의 귀국 이야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荷梅洛斯는 이 전설들을 서사시 『일리어드』와 『오디세이아』에서 읊었다.
- **헤라클레스** 전설은 그리스 신화 가운데 최대의 영웅 무용전의 골자를 이루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덧붙어 또 하나의 전설권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들의 모험과 몇 가지 공적이 중심을 이루는데, 수많은 민간 전승의 이야기로부터 종교적 유래를 가진 설화에 이르기까지 잡다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 그 밖에도 헤라클레스를 맴은 일련의 영웅 모험담을 이루고 있는 **테세우스** 이야기와 괴물 고르곤의 하나인 메두사를 퇴치한 **페르세우스** 이야기 등이 있다.

- 신들의 시대가 동시대의 신화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반면에, 그리스 작가들은 영웅의 시대를 더 선호하였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설명한 후,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업적에 대한 기록과 연대를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영웅 서사시 『일리어드』와 『오디세이아』는 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신통기』와 호메로스 찬가의 규모와 유행을 축소시켰다. 호메로스의 영향으로 "영웅 숭배" 문화는 종교 생활의 개혁을 가져왔고, 죽음(영웅)의 세계에서 신들의 세계를, 올림피안에서 지하 세계의 신들을 분리하여 표현하였다.
- 헤시오도스는 『일과 날』에서 인간 (종족)의 시대를 금, 은, 청동, 철의 네 시대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종족, 또는 시대는 신들의 창조를 기준으로 구별하는데, 금의 시대는 크로노스의 지배에 속하며, 이후의 종족은 제우스가 창조한 것이다. 헤시오도스는 청동 시대 다음에 영웅의 시대를 삽입하였다. 마지막 시대는 철의 시대로, 시인들이 활동하던 시대와 동일하였다. 시인들은 이 시대를 최악의 시대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판도라의 신화를 통해서 철의 시대부터 세상에 악이 존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판도라가 항아리를 열게 되면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좌절되고 오직 희망만이 남았다고 한다. 오비디우스는 『변신 이야기』에서 헤시오도스의 네 시대 개념을 가져왔다.

그리스신화 개보





신화 속 인물

-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말하기 전에 그리스의 지리, 역사, 문명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로 알려진 올림포스의 12신은 제우스를 주신으로 한 친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신족이다. 올림포스란 마케도니아와 테살리아의 국경 근처에 있는 해발 2,885미터의 산으로, 신들이 그 산 정상에 살고 있다고 일컬어졌기 때문에 그리스 신전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생활에 간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일화들을 모아놓은 것이 그리스 신화다. 그러나 신들의 계보를 그대로 전해주는 문헌도 있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와 아폴로도로스의 『그리스 신화』(Bibliothek)** 가 그것이다.
- 그리스의 신들이 사람들의 생활에 간섭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몇 가지 문헌으로도 알 수 있다. 『일리어드』와 『오디세이아』가 그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작품은 가장 먼저 씌어진 작품이며, 저자에 대해서도 이름 외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지만(호메로스가 여자였다는 설도 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올림포스의 12신 각각에 대해서 전해지는 유명한 사람과 관계된 이야기를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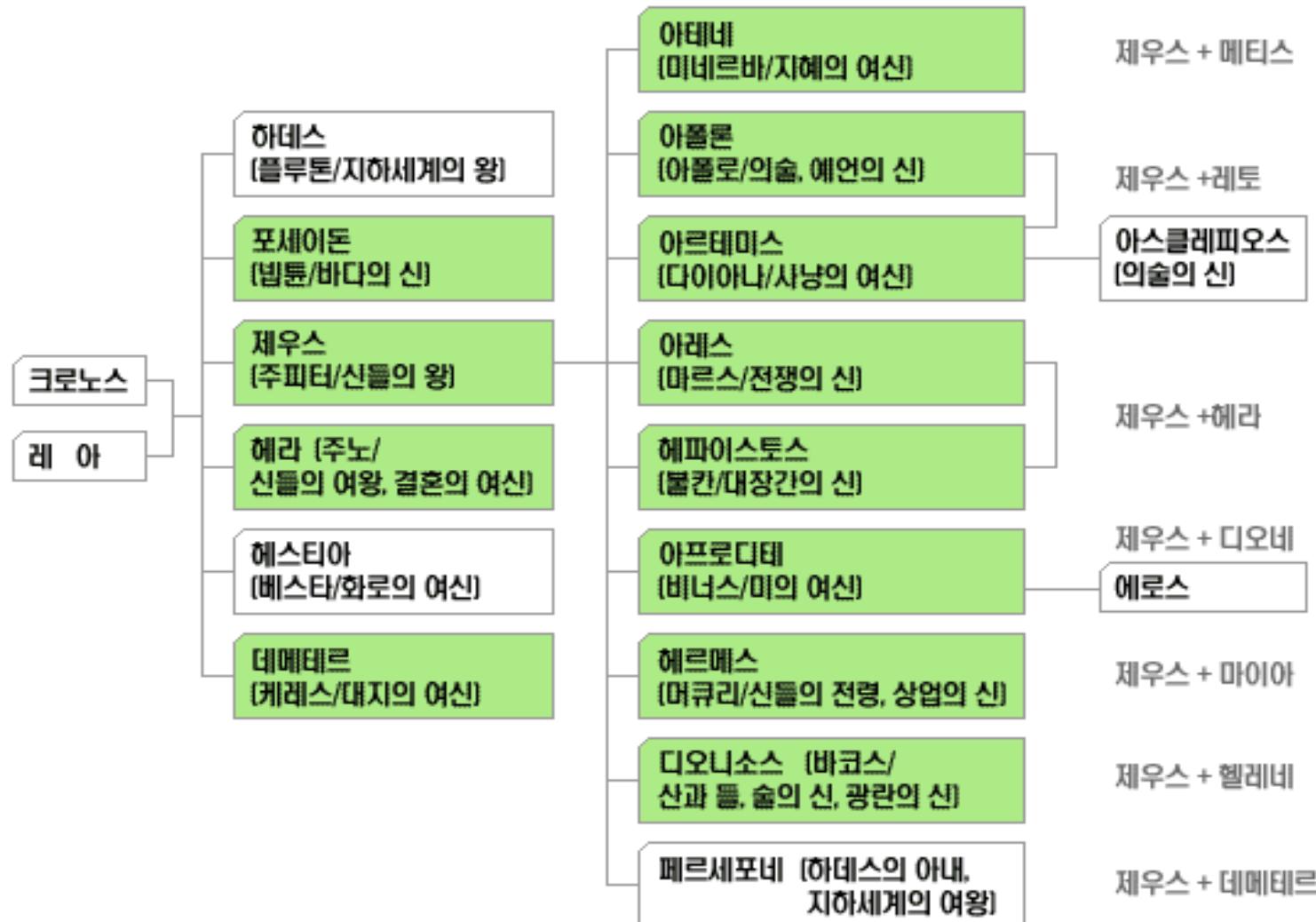


- **제우스**(Zeus)와 헤라(Hera)는 주신과 그의 아내인데, 제우스가 아름다운 인간 처녀나 님프한테 손을 대면 반드시 그 일이 헤라의 귀에 들어가 그와 관계된 자는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지경에 빠진다. 아르고스, 라미아, 헤라클레스 등과 관련된 괴물들이 그런 경우다.
- **포세이돈**(Poseidon)은 바다의 신이자 샘의 신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사람들은 항해를 하기에 앞서 무사한 여정을 그에게 기도했다. 그와 관계된 이야기로 가장 유명한 것은 『오디세이아』다. 그리고 메두사와의 관계에 대한 일화도 있다.
- **아레스**(Ares)는 군신이며 난폭하고 무계획적인 행동을 취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일리어드』에서는 트로이 군의 편에 섰다. 또한 여전사 아마존들이 그의 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 **아프로디테**(Aphrodite)는 미의 여신으로 알려졌으며, 아레스를 몰래 사모했기 때문에 『일리어드』에서는 트로이 편이 되었다.
- **아르테미스**(Artemis)는 아폴론의 쌍둥이 여동생으로, 달과 사냥의 여신으로 알려졌다. 매우 성격이 격한 여신이며, 『일리어드』에서는 그녀보다 활 솜씨가 더 뛰어나다고 주장한 아가멤논에게 벌을 내렸다. 태양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폴론(Apollon)은 예언을 하는 신으로도 알려져서 많은 신전을 가지고 있다.



- **헤르메스**(Hermes)는 신들의 사자로 알려졌으며, 제우스와 바다의 님프 사이에 태어난 신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리고 간다.
- **헤파이스토스**(Hephaistos)는 대장장이의 신으로, 헤라에 의해 올림포스에서 추방되었다. 아프로디테의 남편이다. 그는 진흙으로 판도라는 소녀를 만들어서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의 아내로 만들어 그의 불을 훔쳐간 프로메테우스에게 재앙을 주려고 했다.
- 도시국가(폴리스)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Athene)는 그리스 신화 최고의 여신이다. 지적인 여신이며, 전쟁에서는 갖가지 지략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쟁에 임했을 때 그녀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가호를 주기도 했다.
- **디오니소스**(Dionysos)는 풍요의 신이자 술의 신이다. 여성의 열광적인 숭배를 받는 신인데, 광기(狂氣)의 신이기도 했기 때문에 신화에서 는 별로 유명한 이야기가 없다.
-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Demeter)는 딸을 하데스의 아내로 보내라는 제우스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심통을 부려서 작물을 거둘 수 없게 해버렸다. 최종적으로 한 해의 3분의 1만이라도 딸을 하데스 곁에 두기로 했는데 그 기간을 사람들은 겨울이라 부르게 되었다.

올림푸스 신



『일리어드』 시대: 암흑시대(BC776-480)

- BC 776(8세기): 올림픽 경기 시작
- BC 480: 살라미스 해전
- 이 기간 중
 - ① 도시국가의 성립
 - ② 해외 식민지 개척
 - ③ 고대 올림픽 시작
 - ④ 국민문학 발달(호메로스의 서사시): 트로이 전쟁은 암흑기 이전에 발생
 - ⑤ 1, 2, 3차 페르시아 전쟁(헤로도토스의 기록)

트로이 전쟁의 역사성

- 고대에는 이 전쟁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으나, 19세기의 비판적 역사 연구에서는 허구적인 신화로 취급하는 풍조가 강하였다.
- 1870년부터 독일의 하인리히 슐리만이 트로이 유적지를 발굴하고 고대 유적의 일부를 찾아냈고, 이어 그리스 반도로 가 아테네와 테베, 두 나라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근거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트로이는 신화의 일부일 뿐이라 시인했다.
- 1930년대 미국의 블레겐의 재조사로 트로이 전쟁은 BC 1250년경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1980년대 코르프만: 트로이의 실재성 입증, 만의 유입과 성곽과 해자의 흔적 발견
- 히살리크 언덕 발굴: 1992 독일 튀빙겐 대학, 미국 신시내티 대학이 재발굴, 첨단 음파 탐사기 동원 – 대규모 도시 발굴

『일리어드』 *Iliad* ✓

- 호메로스(Homer BC 850–700)가 구송되어 오던 시를 BC 720(8세기)년경 집대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오디세이아』와 함께 서양문학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로 알려졌다.
 - 호머와 호메로스
 - Epic vs Lyric
- '일리어드'란 말은 “일리온에 관한”이란 형용사인데 일리온에 관한 노래에서 노래를 뺀 말로 ‘일리온(일럼)의 노래’ 란 뜻으로 사용
- 일리온은 트로이의 조상 중에 일로스 이름을 딴 것으로 도시의 이름으로 사용; 트로스란 이름의 조상도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트로이는 지역의 이름으로 쓰고 있어 그 나라의 이름을 혼성해 사용

- 일리어드와 트로이의 어원
 - 그리스인들은 BC 1500~1200년경까지 히타이트 왕국의 영향권에 있는 윌리오스(Wilios)라 불리는 곳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으며, 그 후 “w”소리가 사라지면서 일리오스(Ilios)가 되었다. 로마인들은 일리오스를 일리온(Ilion) 또는 일리움(Ilium)이라 불렀어며 영어로 일리어드(Ilia)로 변하게 되었다.
 - 일리어드란 이름은 '일리온(일럼)의 노래' 란 뜻이다.
 - BC 1700년경 히타이트 왕국(현재 터키 지역)의 기록에 의하면 남쪽에 있는 이웃한 나라로 윌루사(Wilusa)와 타루이사(Taruisa)라는 이름이 나온다. 즉 윌루사(훗날 일리오스 Ilios)는 트로이(Troy)는 다른 나라로 등장하지만 트로이 전쟁 당시 두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었을 가능성과 후세 사람들이 두 나라를 하나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현재 트로이란 윌루사와 타루이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개요

- **청동기 시대**인 BC 1250년경 전설적인 아테네와 테베의 전쟁(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51 일간의 사건을 노래한 것으로 그리스의 장군인 아킬레우스가 중심이 되어 원한과 복수에서 파생되는 인간의 비극을 다뤘다. 10년 동안 계속된 전쟁의 상황과 전쟁에 관여하는 올림포스의 신들, 장수들의 이야기 등을 위주로 한다. 시는 24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 「일리어드」의 원본은 10세기 경에 집필된 「베네투스 A」에 삽입되어 있으며 초판은 1488년 드리트리우스 칼콘딜레스(Demetrius Chalcondyles)에 의해 출판되었다.
- 24장으로 장마다 500~800 행의 강약약 육보격(dactylic hexameter)의 시로 전편은 15,700 행의 대 서사시

Text

- 호메로스, 『일리어드』 유영 번역. 종합출판: 범우, 2011

- 신화와 역사의 보고
- BC 8세기에 호메로스에 의해 서술되었다고 알려짐(장님 음유시인으로 알려짐)
- BC 13-12세기 경 그리스와 트로이와의 전쟁
- BC 5세기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호메로스가 BC 8-9세기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
- 호메로스는 『일리어드』는 전쟁이 시작된 후 10년째 되던 해부터 시작됨

『일리어드』를 왜 읽는가?

- 서양인이 가장 잘 아는 신과 전쟁이야기, 서양문명의 기초가 된 이야기
- 플라톤이 『국가』에서 『일리어드』를 읽지 말라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서양 문학과 문화를 논할 때 항상 『일리어드』가 제일 처음 언급되고 있다.
- 오랜 세월에 걸쳐 읽히고 영화로 제작되었다.
- 그러면 왜?
 - ① 시공을 초월하여 독자들이 공감하는 보편적 인간성
 - ② 그 보편적 인간성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주제
 - ③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시는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경향 더 많고, 역사는 개별적인 것을 말한다"라고 역설

- 역사와 Story telling
 - 그리스와 트로이와의 전쟁(신화와 역사)
 - 트로이 목마(오디세이아)
 - 트로이의 패망(오디세이아)
- 전체가 아닌 일부 사건만을 재구성
- 구전의 역사가 스토리 텔링을 통해 문자화
 - 운율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 행복한 신 xxx): 반복된 어구
- 전쟁 주제 vs 분노의 주제

신화의 인물: 1. 아킬레우스

- 테티스(Thetis)는 여신으로서 죽을 운명인 인간의 아이를 가졌다는데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녀는 이 상황을 모면하려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어린 아킬레우스의 죽을 운명을 불 속에 태우려 했으나 그 잔혹한 장면을 보고 공포에 질린 그리스 신화의 영웅 펠레우스(Peleus)가 저지한다. 펠레우스의 방해에 화가 난 테티스는 땅에 아이를 버리고 바다 속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게 된다. 또 다른 노력으로 테티스는 저승세계의 강 스틱스의 흐르는 물에 아들을 적셔서 보호하려 했다. 그녀는 아이의 발목을 잡고 아들을 적셔서 그 어떤 것도 해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그녀가 잡고 있었던 발목은 적셔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징크스가 되었다.
- 그리스 신화의 영웅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는 발뒤꿈치를 제외하고는 불사신으로서 걸음이 몹시 빠르며, 트로이 전쟁에서 활약하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Paris)에게 발뒤꿈치에 화살을 맞아 죽었다고 한다. 아킬레우스 건이란 명명은 이 신화에서 유래되었다 한다. 호메로스(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어드」 *Iliad*를 보면, 아킬레우스는 무장으로 활약하며, 트로이를 공략하던 중 어릴 적부터의 친구인 파트로클로스(Patroklos)가 전사하자 그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장례 경기를 개최하기도 한다. 「일리어드」의 제23가에 나오는 '파트로클로스 추모 경기의 각종 운동 경기(수레 경기, 복싱, 레슬링, 달리기, 창 싸움, 원반던지기, 활쏘기, 창던지기)는 미케네 문명과 그리스 문명 당시의 체육 경기를 엿볼 수 있으며 체육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아킬레우스의 운명:
- 아킬레우스가 성장하면서 당대의 가장 뛰어난 교사 켄타우로스인 케이론의 교육을 받던 중 트로이 전쟁이 발발한다. 테티스는 아킬레우스의 운명이 짧지만 영광스런 삶을 살거나 혹은 길지만 보통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는 분명 훌륭한 전사가 될 것이지만, 그 결과 그는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사랑스런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테티스는 어린 아킬레우스에게 소녀처럼 옷을 입혀 스킬로스 섬에 숨겨둔다. 이때 아킬레우스는 데이다미아와 사이에서 네오프톨레모스를 낳게 된다.
- 한편 그리스가 트로이를 함락하는데 아킬레우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예언으로 오디시우스가 스킬로스 섬으로 와 여성의 장신구를 판매하는데 여기에 참과 방패를 함께 두고 경고음을 내자 모든 소녀들은 허둥지둥하는 반면 아킬레우스는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울 준비를 한다. 결국 아킬레우스는 발각되어 트로이 원정대에 참가하게 된다.

2. 펠레우스(Peleus)

-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테살리아의 프티아 국왕이며 영웅인 아킬레우스의 아버지
- 형제 텔라몬과 함께 이복동생 포키스를 죽인 펠레우스는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서 프티아로 달아났다. 프티아 왕 악토르의 양자 유리티온이 그의 죄를 정화해주었다. 악토르가 딸 폴리멜라를 아내로 주고 왕국의 1/3을 주었다. 악트로, 유리티온, 펠레우스가 프티아를 삼분해서 다스렸다. 유리티온과 펠레우스는 칼리돈 맷돼지 사냥에 함께 참가했다. 펠레우스가 던진 창이 맷돼지가 아닌 유리티온을 죽여버렸다. 펠레우스는 이번에는 이올코스로 달아나 아르고호 원정대 동지인 아카스토스 왕에게 죄를 용서받았다. 아카스토스의 아내 크레테이스가 펠레우스를 유혹했다. 펠레우스가 이를 거절하자 그녀는 폴리멜라에게 그가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딸 스테로페와 결혼할 작정이라고 거짓말했다. 절망한 폴리멜라는 목을 떼 자결했다. 크레테이스는 남편에게 펠레우스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모함했다.
- 절친한 친구이자 손님인 펠레우스를 직접 죽일 수 없었던 아카스토스는 펠레우스를 데리고 펠리온 산으로 사냥을 나갔다. 정절을 지킨 펠레우스를 위해 신은 그에게 마법의 검을 하사했다. 이 검은 명장 다이달로스가 제작한 것으로 이 검의 소유자는 전투에서는 무적, 사냥에서 짐승을 놓치는 법이 없었다. 펠레우스는 사슴, 맷돼지, 곰을 손쉽게 잡고 우승했다. 저녁을 거하게 먹은 펠레우스는 지쳐 잠이 들었다. 아카스토스는 검을 훔쳐 소똥더미 속에 숨기고 동료들을 데리고 가버렸다. 잠에서 깨어난 펠레우스는 무기도 없이 혼자 버려진 것을 알았다. 난폭한 켄타우로스 종족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켄타우로스 종족의 현자 케이론이 나타나 그를 구해주고 검도 찾아주었다.

- 테미스 여신의 충고에 따라 제우스는 펠레우스를 테티스의 남편감으로 정했다. 제우스는 테티스를 사랑했지만 그녀가 아버지를 능가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운명의 경고 때문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녀가 양어머니 헤라 여신의 뜻에 따라 그의 사랑을 거부했기에 신이 아닌 인간에게 시집보내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헤라는 케이론의 집에 머무는 펠레우스에게 신의 뜻을 전하고 동시에 여러 신들을 양녀 테티스의 결혼식에 초대했다.
- 케이론은 펠레우스에게 테티스와 결혼할 수 있는 비책을 알려주었다. 펠레우스는 테티스가 가끔 낮잠을 자려 오는 해안가 동굴 가까운 숲 속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알몸으로 돌고래를 타고 도착한 테티스는 동굴로 들어갔다. 테티스가 누워 눈을 감자 펠레우스가 그녀를 덮쳤다. 둘의 몸싸움이 매우 치열하게 펼쳐졌다. 테티스는 불로 변해 펠레우스의 몸을 태웠다. 사자가 되어 물어 뜯었다. 뱀으로 변신해 또아리를 틀어 숨을 막히게 했다. 오징어가 되어 먹물을 쏘았다. 그러나 펠레우스는 이미 예상했던 사태에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마침내 테티스는 저항을 포기하고 펠레우스와 사랑을 나누었다.
- 둘의 결혼식은 펠리온 산 근처 케이론의 저택에서 거행되었다. 올림푸스 신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제우스와 헤라가 둘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 네레이드들이 막내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춤을 추었다. 케이론은 펠레우스에게 창날은 헤파이스토스가, 손잡이는 아테나 여신이 직접 만든 창을 선물했다. 신들은 황금 투구를 주었다. 포세이돈은 불멸의 명마 발리우스와 크산토스를 선물로 주었다. 이 결혼식으로부터 트로이 전쟁은 시작되었다.

- 펠레우스는 제우스가 보내준 미르미돈 전사들과 함께 이올코스로 쳐들어갔다. 아카스토스 왕을 죽이고 간악한 크레테이스의 시체를 놓지쳐참했다. 테티스는 펠레우스한테서 얻은 여섯 아들의 유한성을 태워 없애고 그들을 올림푸스로 올려 보냈다. 일곱째 아들이 태어나자 테티스는 똑같은 작업을 진행했다. 발목만 남긴 상태에서 펠레우스가 아이를 낚아챘다. 화가 난 테티스는 펠레우스에게 작별을 고하고 바다로 돌아갔다. 그녀는 아들을 **아킬레우스(입술이 없는)**라고 이름지었다. 그때까지 어머니의 젖을 물지 못했기 때문이다.
-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자 펠레우스는 아들 아킬레우스에게 자신의 황금무구와 창과 명마를 주었다. 아킬레우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카스토스의 아들들이 펠레우스를 쫓아냈다. 테티스는 그에게 처음 만났던 동굴에서 기다리면 데리러 오겠다고 충고했다. 펠레우스는 동굴에서 하염없이 그에게 해를 바라보며 손자 네오프톨레모스의 귀향을 기다렸다. 손자가 에피로스에서 난파당했다는 소식에 그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이코스 섬에 좌초해서 그곳에서 죽었다고 한다.

3. 테티스 (Thetis)

- 제우스의 딸이자 영웅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이며, 네레우스의 50명의 딸 네레이스 중 하나로서 바다 밑에서 자랐다. 공신 헤파이스토스가 천상에서 바다로 내던져졌을 때 그를 살려주었고, 또한 도망쳐 온 디오니소스의 신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황금의 단지를 선물 받았다고 한다. 제우스와 포세이돈 등 여러 신들의 청혼을 받았으나, 결국 인간인 프티아의 펠레우스와 결혼하여 트로이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를 낳았다. 펠레우스와의 결혼식 때, 모든 신들이 초대되었으나 모두가 꺼려하는 싸움의 여신 에리스만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노한 에리스는 연회석상에 **황금의 사과를 던짐으로써** 이 사과를 서로 가지려고 덤비는 여신들의 싸움이 트로이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트로이전쟁에서는 아들 아킬레우스를 위해 시종 그리스군을 편들었다.

트로이 전쟁(Trojan war) 배경신화

- 제우스의 딸이자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신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은 아버지 제우스를 능가 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겁을 먹은 제우스는 테티스를 인간 펠레우스와 결혼시킨다.
 - 제우스나 어떤 신과도 결혼 불가
- 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제우스의 부인 헤라, 제우스의 두 딸 아테네(기질이 강한 여신)와 아프로디테(미의 여신)가 초대되었다. 이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싸움의 여신 에리스는 화가 나 “가장 아름다운 분에게”라고 쓰여진 사과를 연회장에 던지고 이를 차지하려던 세 여신들 간에 시비가 인다.
- 판정관으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일명 알렉산드로스)가 임명된다. 원래 파리스는 프리아모스(Priamos, Priam) 왕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나라에 큰 재앙을 가져 올 것이라는 예언에 따라 버렸으나 우여곡절 끝에 살아 돌아 온 것이다.

- 파리스의 선택:
 - 이때 제우스의 딸 아테나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한다.
 - 제우스의 부인 헤라는 “권력을 약속”한다.
 -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게 될 것을 약속”하고 황금사과를 얻게 된다.
- 파리스의 귀환 → 그리스 방문 → 메넬라오스의 출장 → 헬렌을 유혹

- 다시 지상으로 돌아온 파리스는 그리스로 건너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렌을 유혹하여 트로이로 데려온다. 헬렌을 되찾고자 그리스는 메넬라오스의 형제이자, 미케네(아르고스)의 왕인 아가멤논의 지휘 아래 거대한 원정대를 보내지만, 트로이는 헬렌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였다.
 - 헬렌: 제우스와 인간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알려짐) – 수많은 청혼자 중 스파르타의 왕 메넬레우스와 결혼
- 전쟁이 일어난지 10년 후를 배경으로 하는 『일리어드』에서는 아가멤논과 그리스의 뛰어난 전사 아킬레우스 사이의 반목, 군대의 철수,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갑옷과 투구를 걸치고 출전한 아킬레우스의 친구 파트로클로스는 프리아모스의 장남 헥토르와의 전투에서 살해당한다.

- 그후 아킬레우스는 친구의 죽음을 복사하기 위해 출전하여, 헥토르를 죽이고도 겨분해 헥토르 시신을 능멸한다.
- 헥토르와 파리스의 아버지 프리아모스는 몰래 아킬레우스 지지를 방문해 사정하여 시신을 돌려 받고, 헥토르의 장례식을 치른다.
- 헥토르의 죽음 이후 트로이 진영에는 동맹 관계인 아마존의 여왕 펜테실레아, 에피오티아의 왕이자 새벽의 여신 에오스의 아들인 멤논이 가세하였다. 아킬레우스가 이 둘을 죽였으나, 그는 파리스의 화살로 죽게 되었다.
 - 아킬레스 건

- 결국 그리스군은 거대한 목마를 남기고 철수하는 위장 전술을 펼쳤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간 트로이군은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 놓고 승리의 기쁨에 취하였다. 새벽이 되어 목마 안에 숨어 있던 오디세우스 등이 빠져 나와 성문을 열어 주었고 그리스 군이 쳐들어와 트로이성은 함락되었다.
 - 여기서 비롯된 '트로이의 목마'는 외부에서 들어온 요인에 의하여 내부가 무너지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 그리스는 트로이를 함락시키기 전에 성채에서 팔라스 아테나의 목조상 (팔라디움을 훔쳤으며, 마지막에 와서는 아테나의 도움으로 트로이 목마를 완성시켰다. 프리아모스의 딸 카산드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트로이인들은 그리스 진영의 탈영병으로 가장한 시논의 설득만을 믿고 그 목마를 아테나에게 바치는 공물로써 트로이 성안으로 들였다.
- 신관 라오콘이 이 목마를 파괴하려 했으나, 갑자기 나타난 바다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다. 밤이 되어 그리스 함대가 돌아오자, 목마에 숨어있던 그리스인들은 트로이의 성문을 열었다. 총력을 기울인 약탈이 이루어지면서, 프리아모스와 남아있던 그의 아들들은 살해 당했고, 트로이의 여자들은 그리스 여러 도시의 노예로 전락했다.
- 모험적인 그리스 지도자의 귀향 항해 (아가멤논을 살해한 아이네이아스와 오디세우스의 방랑 포함)는 두 개의 서사시 「귀향」 (소실된 노스토이),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에서 다루고 있다. 트로이권은 트로이 세대의 자녀들이 겪는 모험도 담고 있다. (오레스테스와 텔레마코스)

『일리어드』의 구성

- 그리스 트로이 전쟁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고 전투의 마지막 51일 전투
 - 1-2권: 전투의 서막
 - 3-7권: 첫째 날 전투
 - 8-10권: 둘째 날 전투
 - 11-18권: 셋째 날 전투
 - 19-22권: 넷째 날 전투
 - 23-24권: 전투의 마무리(헥토르의 장례식)

플롯 √

- 이 책은 그리스 전설의 영웅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잔인한 전쟁의 이야기로 그 장대한 전쟁의 장면과 수많은 영웅의 용맹이 독자의 마음속에 생생히 전해진다.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공격하고 난공불락의 트로이 성 앞에서 교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10년의 세월이 지났고 『일리어드』는 오랜 전쟁 끝에 불자가 부족하자 이웃나라를 공격하여 물자를 조달함과 동시에 크리세이스와 브리세이를 납치한다. 이를 전리품으로 아가멤논 왕은 크리세이스를, 아킬레우스는 브리세이스를 차지했다. 그러나 아폴론 신의 개입으로 역병을 퍼뜨리자 크리세이스를 돌려준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 차지였던 브리세이를 빼앗아가버린다.
- 이에 격분한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아가멤논(미케네의 왕)과 불화를 초래하고 자신의 군대를 철수시키고 트로이와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다. 그후 그리스군은 패전을 거듭하게 되자 아킬레우스의 친구 파트로클로스는 그에게 참전을 요청하지만, 그가 고집을 부려 결국 갑옷과 투구만을 얻어 파트로클로스가 참전하지만 트로이의 헥토르에게 살해당하고 만다.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복수하기 위해 아킬레우스는 다시 전쟁에 참여하여 헥토를 살해하고 증오심에 눈이 어두워 헥토르의 시체를 끌고 다닌다.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마스 왕은 야밤에게 아킬레우스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아들 시신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아버지 생각으로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준다. 그리고 휴전하고 헥토르의 장례식을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문제

- 희랍 진영의 인물과 신 : 트로이 진영의 인물과 신
- 줄거리: 너무나 많은 전투 장면을 빼고 5개로 요약

아가멤논과의 불화

전쟁에서 철수

파트로클라스의 죽음

전쟁에 복귀

헥토르와의 전투

헥토르 시신의 학대

신들과 파트로클라스
의 요청으로 시신 반환

헥토르의 장례식

평가

- 트로이 전쟁은 고대 그리스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주제를 제공하였으며, 그들의 영감을 자극하는 주요 원천이 되었다. (예: 트로이 약탈이 묘사된 파르테논의 메토프) 트로이 전쟁에서 유래한 주제가 이같은 예술적 선호를 받은 사실은 이것이 고대 그리스 문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동일한 신화적 연대기 또한 후대 유럽 문학 작품의 일련에 영향을 주었다.
- 예를 들어서,荷梅洛斯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트로이 전쟁 유럽 작가는 트로이 전설에서 영웅과 낭만적 이야기의 풍부한 원천과 함께, 이것이 그 시대에 맞게 궁정풍의 기사적인 전형으로 각색하기 쉬운 구조를 갖췄다는 것을 발견했다.
- 브누아 드 셩트 모르 (『로망 드 트로이』, 1154–60년), 엑세터의 조셉 (『드 벨로 트로이노』, 1183년)과 같은 12세기 작가들은 전쟁을 묘사하면서 딕티스와 다레스의 이야기를 각색하였다. 이들은 호라티우스의 조언과 베르길리우스의 전례를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하는 대신에 트로이의 시를 다시 쓴 것이다.

- 영웅 서사시 『일리어드』와 『오디세이아』는 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신통기』가 보여준 찬가의 규모와 유행을 위축시켰다고 볼 수 있다. 호메로스의 영향으로 "영웅 승배" 문화는 종교 생활의 개혁을 가져왔고, 죽음(영웅)의 세계에서 신들의 세계를, 올림피안에서 지하 세계의 신들을 분리하여 표현하였다.
-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트로이 전쟁과 그 결과에서 절정을 이룬다. 호메로스 작품에서는 주된 줄거리가 이미 충분한 형태와 요지를 갖추었으며, 개별적인 주제의 경우에는 그 후에 그리스 연극과 같은 매체에서 더욱 자세해졌다.
- 트로이 전쟁은 또한 아이네이아스의 이야기로 로마 문화에서 굉장한 관심을 이끌어내었다. 이 이야기에서는 트로이의 영웅인 아이네이아스가 트로이를 떠나 방랑하던 중 로마 제국의 건국 시조가 된 새로운 도시를 세웠다고 전하는데, 베르길리우스가 이후에 『아이네이아스』라는 책으로 자세히 다루었다.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아스』 2권에는 매우 잘 알려진 트로이 부대 이야기가 있음.) 마지막에 와서는 딕티스 크레텐시스, 다레스 프리기누스라는 이름의 저자가 썼다는 허위 연대기 두 권이 라틴어로 쓰여져 전해 내려온다.

논의 주제

- 이야기 속 전쟁의 역할
 - 대규모 군사행동의 합리화(전쟁의 명분)
 - 군사적 지도력
 - 전투에서의 용기와 비겁함
 - 승자와 패자의 결과
 - 명분과 개인적 영광의 전투
 - 국가간 전쟁 vs. 이해 당사자 간 결투: 그리스와 트로이 vs. 매넬라우스와 파리스의 대결: 헥토르 vs. 아킬레우스
- 아가멤논과 희생 제사와 그리스 연합군 규합
 - 딸 이피게니아의 희생과 아가멤논의 죽음, 다른 도시 국가의 참여와 군인들에 대한 충성 요구

- 아킬레우스의 분노 (영웅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
 -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매장도 못하게 하고 팽개쳐버리는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며 인간성 상실을 겪게 된다. 그러나 프리아모스의 간청으로 고통과 비극을 통하여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영웅다운 품위를 되찾는다. 이는 인간성 회복을 존중했던 서구문명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아킬레우스는 명예와 안전한 삶간에 갈등하고 전자를 선택한다. 또한 이 책은 삶의 풍요로움과 인생의 단명, 죽음의 필연성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서 신의 역할이 크지만 인간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 가끔 이들의 경박함으로 인간들의 삶이 좌지우지되기도 한다.
- 삶과 명성
- 신들과 전쟁의 관계
- 아킬레우스의 선택
-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세계 비교

- 문명의 충돌의 서사시
- 전쟁 후의 그리스의 변화: 전쟁 후 청동기 시대의 종말, 미케네의 몰락, 그리스의 암흑기)
- 전쟁의 영웅(아킬레우스, 헥토르, 아가멤논, 메넬라우스, 오디세이, 파리스, 프리아모스, 헬렌 등)의 운명
- 『일리어드』 와 역사적 사실과의 비교와 의미
- 『일리어드』 의 변화: 트로이에서 헐리우드까지

1. 전쟁의 역할

- 전쟁의 주제 (날짜별 – 균형 강조): 전투의 시작, 전개, 결말
 - 전투 첫날: 디오메데우스의 활약(오류, 변형), 헥토르와 아리아스와 대결 (주로 아카이아 군의 승리)
 - 둘째 날: 균형이 잡혀 있는 날(트로이의 승리)
 - 셋째 날(11권-17권): 각축의 날 – 파트로클라스의 죽음 – 아킬레우스의 출전(패배와 승리 반복)
 - 넷째 날(19-22권): 헥토르의 죽음
 - 전쟁의 이야기 속에 삶의 모습이 직유와 인물묘사가 탁월하게 그려져 있음

2. 아킬레우스의 분노

- 일리어드는 부제가 “아킬레우스의 분노”: 분노의 주제로 이 분노의 해소를 주제를 다루고 있다.
 - 이야기의 실마리는 **성난 사나이**에서부터 풀린다. 펠레우스가의 영주 **아킬레우스의 쓰라린 유한이** 아카이아 군에게 수많은 난관을 가져온다. 굳센 용사들을 황천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영웅들로 하여금 개밥이 되게 하고, 뭇 새들의 성찬이 되게 한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 그러나 제우스의 뜻은 변함없이 움직여간다. 우선 아트레우스족의 왕 아가멤논 대왕과 아킬레우스 영주의 언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느 신이 두 사람 사이에 불화를 일으켜 놓았는가? (1권)

아감메논의 후회

- p154

오디시우스의 설득

- P 157
- 오디시우스는 아킬레우스 아버지 펠레우스의 말을 인용
 - '애야, 아테네와 헤라가 주고자 하실진댄, 승리의 월계관은 그대 머리에 씌여지리라. 하지만 네가 명실할 것은 교만한 마음에 자갈을 물리는 일이다. 왜냐하면 친절한 마음이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니 말이다. 알력을 피하라. 그사람은 멸망에 앞서간다. 그러면 온 겨레가 노소를 불문하고 그대를 기리리.' 이것이 노왕의 훈계였는데 그대는 잊었소이까?
- P 160
- 아킬레우스의 거절: 강한 불신으로 더 이상 아감멤논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
- P 162: 어머니 테티스가 아킬레우스의 운명에 관해 말함
- P 163 오디시우스가 아킬레우스를 설득시켜 전쟁에 참여시킴
- 끝으로 파트로클로스에게도 설득을 부탁함

3. 전쟁의 명분과 명예

- 전리품 분배 (전쟁의 동기)
 - 크리세이스 아가멤논의 몫 – 아폴론의 화살의 공격으로 역병이 돌자 – 돌려 보내고,
 - 브리세이스 아킬레우스의 몫 – “**명예의 선물**”로 아가멤논이 강탈
 - “내가 피땀 흘려 얻었고 아카이오이족의 아들들이 내게 준 내 명예의 선물” 강탈에 대한 분노
- 전쟁 참여: 자발성, 무기 개인 구입, 전리품은 싸움의 “**명예의 선물**”
- 전투 철수의 근거: 명예에 손상을 받았기에 분노(비영웅적 행동) <-> 불멸의 명성 (영웅적 행동, 공공의 목표인 전쟁의 승리)

4. 삶과 명성

- 즉 은발의 내 어머니 테티스는 두 줄기의 다른 운명이 죽음의 길에서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 말씀하셨소. 만일 내가 여기 머물러 트로이 군과 맞서 싸운다면 귀국의 길은 영영 살라지고 말 것이나 내 이름은 영원히 변치 않고 후대에 길이 남을 것이오. 또 하나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큰 명예는 얻지 못할 것이나 그 대신 장수하고 요절은 당하지 않으리라 하셨오. (9권 162-3)

- 호메로스의 『일리어드』를 보면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고향 이타케로 귀환하는 도중 죽음의 세계 경계에서 이미 죽어 저승에 간 아킬레우스의 혼령을 만난다. 오디세우스는 그곳에서 아킬레우스를 발견하고 이것저것 물었다. 오디세우스가 건네준 숫양의 피를 마시고 기력을 찾은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말했다.
 - “난 거름속에서 사는 초라한 진흙투성이 농부가 되고 싶다네. 하데스의 암흑 속에서 사는 영웅 아킬레우스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태양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가장 가난한 사내가 되고 싶네.”

5. 신들과 전쟁과 관계

- 그리스 연합군: 헤라, 아테나, 포세이돈
- 중립: 제우스, 허미스
- 트로이: 아프로디테, 아레아스, 아폴론

5. 아킬레우스의 선택

- 아킬레우스가 짧고도 영광스러운 삶과 길지만 아무 영광도 없는 삶 중에서 선택을 해야 했을 때, 그에게는 한 치의 망설임도 의혹도 없었다. 아름다운 죽음으로 마감하는 짧은 인생의 영광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영광스러운 삶을, 한창 젊은 나이에 영웅답게 죽기를 선택했다.
- 오디세이가 혼령 아킬레우스를 만났을 때 아킬레우스는 “난 거름 속에서 사는 초라한 진흙 투성이 농부가 되고 싶다네. 하데스의 암흑 속에서 사는 영웅 아킬레우스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태양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가장 가난한 사내가 되고 싶네.”라고 말한다.
- 전쟁에 참여하는 아킬레스의 선택

- 아가멤논과의 불화로 전쟁에서 철수하는 아킬레스의 선택
-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으로 다시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는 선택
- 트로이 왕이자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에게 헥토르의 시체를 돌려 주어 장례식을 치르게 하는 아킬레우스의 결정

-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보복할 경우 본인도 죽음을 맞을 것이라는 어머니(테티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임하기로 결정하는데 그 근거는?
 - 아킬레스는 친구의 죽음이 자신의 탓으로 여겼기 때문에 트로이 군은 물론 자신에게도 몹시 화가 나 있었다.

부상당한 파트로클레스를 돌보는 아킬레우스 ✓



Thetis Dipping the Infant Achilles into the River Styx (ca. 1625), Peter Paul Rubens



The Education of Achilles (ca. 1772), by James Barry



화살을 맞은 아킬레우스 상



영화 『트로이』 의 아킬레우스



그리스 로마의 신

그리스 이름	로마 이름	영어 이름	맡은 임무
제우스	유피테르	주피터	올림포스 최고의 신
헤라	유노	주노	결혼과 가정의 여신
포세이돈	넵투누스	넵튠	바다의 신
디오니소스 (헤스티아)	바쿠스 (베스타)	바카스 (베스타)	술과 황홀경의 신 (화로, 불의 여신)
데메테르	케레스	세레스	대지 · 곡식 · 수학의 여신
아테나	미네르바	미네르바	지혜 · 전쟁의 여신
아프로디테	베누스	비너스	사랑 · 미의 여신
아레스	마르스	마스	잔인한 전쟁의 신
아폴론	아폴로	아폴로	태양 · 음악 · 예언 · 궁술의 신
아르테미스	디아나	다이아나	달 · 사냥의 여신
헤파이스토스	불카누스	불칸	불 · 대장간의 신
헤르메스	메르쿠리우스	머큐리	전령 · 상업 · 여행 · 도둑의 신

- 그리스 로마 신화는 비유(analogy)의 보고이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에 바탕을 두고서 우리는 각자가 처한 현재의 상황, 느낌을 설명하곤 한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신화를 모르면 누군가 자신의 상황과 입장, 느낌을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다음에 나오는 신화를 활용한 직유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보자.
 -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판도라
 - 간을 쪼아 먹히는 벌을 받는 프로메테우스
 - 평생 바위를 굴려 올려야 하는 시지포스
 - 아틀라스를 속인 헤라클레스
 - 거미가 된 아라크네
 - 미궁을 탈출한 테세우스
 - 사람을 침대에 맞추는 프로크루테스
 - 에로스를 믿지 못했던 프쉬케

- <https://www.youtube.com/watch?v=Sq-uMIZGETs>

프로그램 3 과제:

- 호메로스의 『일리어드』
 - 1) 신화적 배경으로 “황금사과”를 조사하여
 - 2) 『일리어드』의 스토리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분석하고
 - 3) 대표적 인물의 성격 분석을 통해
 - 4) 주제가 무엇인가 소개하고
 - 5) 그 주제의 현실적 의미를 조사한다.
 - 6) 아울러 아킬레우스의 선택과 현실 세계와의 비유
- PPT slides로 발표

논쟁

- 「일리어드」 이전의 선택과 이후의 선택
 - 저승에서 영웅이 아닌 태양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가장 가난한 사내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까?
 - 아킬레우스가 짧고도 영광 스러운 삶과 길지만 아무 영광도 없는 삶 중에서 선택을 해야 했을때, 그에게는 한치의 망설임도 의혹도 없었다. 아름다운 죽음으로 마감하는 짧은 인생의 영광은 다른 어떤것보다 더욱 가치있는 일이었기때문에 그는 영광스러운 삶을, 한창 짧은 나이에는 영웅답게 죽기를 선택했다.
- 아킬레스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선택
- 아가멤논과의 불화로 전쟁에 불참하게 된 선택
- 파트로클로소의 죽음을 계기로 전쟁에 다시 참여하게 된 선택
- 헥토르의 시신을 마차에 매달고 성곽을 도는 선택
- 프리아모스왕에게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는 선택

- 『일리어드』의 선택의 문제와 현실 세계와의 비유

- BC: Before Christ
- AD: Anno Domini

- 자존심, 분노, 명예욕, 욕정 – 인간의 속성
 -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억제하여야 한다.
 - 자존심과 분노 (아킬레우스)
 - 파리스 (욕정)
 - 아가멤논 (명예욕)

신과 인간

- 신들은 인간의 또 다른 생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줄리언 제임스 The Origin of Consciousness in the Breakdown of the Bicameral Mind)는 이원적 정신구조를 가진 고대인은 결단이나 사려 깊은 행동이 필요해질 때 머릿속에서는 정신의 이쪽 부분과 저쪽 부분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의논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리어드』에서 고대인들이 노의 이쪽이 들은 뇌의 저쪽 말을 신의 개입이라고 생각했다.
- 신들의 대화와 대결은 유머러스 한 반면, 인간의 대화와 대결은 진지하다.

- 두 무사의 가치관 충돌
 - 아킬레스: 원시적 야수성, 반사회적 파괴성, 절제되지 않는 본능의 화신;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승리가 전부인 곳에 살고 있으며 전투가 끝나면 외톨이로 남아 죽음을 기다릴 뿐이다.
 - 헥토르: 따뜻한 가정과 도시국가의 대표자, 자기통제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옹호자
- 신과 인간의 관계
 - 신들이 운명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모두에 소란을 일으킨다.
 - 신의 음성은 영웅에게 할 일을 말해 주는 마음의 음성이다.

자식 반환 탄원

- 제1권: 아킬레스가 크리세스의 자식 반환 탄원을 거부한다.
- 제24권: 아킬레스가 프리암의 자식(헥토르) 시신 반환에 선의를 베푼다.
- 마지막 장에서 아킬레스는 파트로클로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들어내고 프리암을 만나면서 도덕성에 변화가 생긴다. 그는 이제 남의 슬픔을 이해할 능력과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고 타인에게 연민을 느낄 줄 알게 되면서 잠재된 보다 고상하고 인간적인 성격이 힘을 얻는다.
-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아킬레스의 개인적인 발전이 주제가 된다.

네스토로의 역할

- 네스토로는 현명한 상담자이며 줄거리 진행에 동기를 부여한다. 가끔은 재미난 역할을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목적이 있다. 상대방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는 능력,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칭찬하는 수법, 왕에게 전술적 충고를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질서를 질서로 돌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1,000 개의 선택과 나 ✓

-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의 모습을 만들었다. 인생은 도전과 선택의 순간이 계속이다. 경쟁에서 이긴 정자가 난자와 결합하여 온갖 유전적 결함과 질병의 도전을 받으며 인간은 태어난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과 선택으로 모유를 먹기도 하고 분유를 먹기도 하면서 개인의 의지를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한 개인은 도전과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형, 누나, 동생들 간에 먹을 것, 옷, 심지어는 부모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한 행동에서 도전과 선택이 시작된다. 이어서 학교관계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직장관계에서의 도전도 이어지고 매 도전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 선택은 누적되어 파급 효과를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 개인의 내적, 외적 모습을 결정하게 되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사람은 짧은 하루에도 1,000 개 이상의 도전을 받게 되고 이런저런 선택을 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까, 아니면 조금 더 잘까 하는 도전이 닥치게 된다. 잠에 대한 도전에 일찍 눈을 뜨기로 선택한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맞추기 위해 허겁지겁할 필요가 없어진다. 반면 잠이라는 도전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옷차림부터 다음 일에 늦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애초에 늦은 사람은 아침을 서두르게 되어 식사를 거르거나, 약속이나, 학교와 직장에 늦을 수가 있다. 등교할 때나 출근할 때 버스나 택시를 탈 것인가, 과제를 할까 말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할까 미모와 멋이 있는 사람을 선택할까, 이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 저 일을 선택할 것인가, 이 약속에 갈까 저 약속에 갈까,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가, 담배를 끊어야 할까 피워야 할까 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도전이고 여기에는 선택이 따른다. 이 많은 도전에 어떤 것은 의식적으로, 어떤 것은 감정적으로, 또 어떤 일은 무의식적으로 결정되어 결과를 잉태하게 된다. 또 어떤 선택은 자신의 의지로 결정되지만, 의지와는 무관하게 선택되는 경우도 있다.

- 예를 들면 늦잠을 잤기에 택시를 선택한 사람은 일찍 일어난 사람과 같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지만, 오는 중에 사고를 당할 수도 또는 택시기사와 싸울 수도 있고, 무사히 빨리 도착하더라도 버스에 비해 많은 돈을 지출하였기에 주머니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 친구와 식사 시간에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지기도 한다. 모든 도전은 자의든 타의든 결정되어 그 파장이 다음 일에 연결된다. 또 시험이라는 도전에서 남들이 놀 때 조금 더 공부하기를 선택하고 조금 덜 잠자기를 선택한 사람은 좋은 성적으로 진학과 입사, 진급 등 다양한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동료의 선택이나 배후자 선택, 경제적 선택의 폭이 커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조금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매일매일 닥치는 수많은 도전을 몇 개나 극복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실천했는가는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많은 도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의 정답이나 공식은 바둑의 수보다 더 많다.
- 지금까지 개인에게 닥친 도전과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역시 또 다른 선택이다. 그 동안 누적된 결과에 만족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불만족 하다고 선택하여 상실감 속에서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선택에 대한 정답은 없더라도 매일 닥치는 도전에 대한 선택의 결과가 오늘 자신의 모습이기에 현재를 순리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보다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시인 Robert Frost의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에서처럼 선택은 항상 존재하지만, 일단 선택한 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할 것이다. 이유는 앞으로 100만 개나 더 도전이 있고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The Road not Taken(1916)

by Robert Lee Frost(1876-1963)

-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
- 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
- And be one traveler, long I stood
- And looked down one as far as I could,
- To where it bent in the undergrowth:

- Then took the other, as just as fair,
- And having perhaps the better claim,
- Because it was grassy and wanted wear:
- Though as far that the passing there
- Had worn them really about the same.

- And both that morning equally lay
- in leaves no step had trodden black,
- Oh, I keep the first for another day!
- Yet knowing how way leads on to way,
- I doubted if I should ever come back.

-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and I-
- I took the one less travelled by.
-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The Road not Taken(1916)

by Robert Lee Frost(1876-1963) ✓

-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 있었습니다
- 두 길을 다 갈 수 없는 안타까움에
-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한쪽 길을
-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가 안 보이는데 까지
- 멀리 멀리 바라 보았습니다

- 그리곤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 그 길은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도 적어
-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 길도 걸으므로 거의 같아 질 테지만,

- 그 날 아침 두 길에는
- 낙엽을 밟은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처음 본 길을 남겨 두었습니다
- 길은 길에 이어져 끝없으므로
-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를 의심하면서

- 훗날 훗날에 어디선가
- 나는 한숨지으며 이야기 할 것입니다
-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영웅과 명예

분노, 다툼, 소외, 화해

개인과 사회

- 아킬레스
- 헥토르
- 오딧시우스

- [인문학 노마드] (서양4) 일리아스 1 - 호메로스 스타일 (일리아스는 어떤 책인가?)
- <https://www.youtube.com/watch?v=x8EYHD6pgI0&t=930s>

P4-5: 구약의 구성과 단편의 이해

- 성취역량:
 - 성서의 종교적, 문학적 가치를 이해한다.
 -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분석한다.
 - 『구약』의 인물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다.
- 과제내용
 - 구약의 1) 주인공을 선택하여 2) 문학세계의 주인공과 비교하고 3) 현실에서 그 주인공이 가지는 의의를 PPT 슬라이드 15장 내외로 준비하여 발표하시오.